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 고금리 퇴직연금 상품 경고

-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시장의 무분별한 고금리 경쟁 등에 따른 관련 사업자(은행 15, 보험 21, 증권 17)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관련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작성·보관하도록 지도 공문을 발송함.
 - 이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고, 연 7~8%의 고금리 원금보장형 상품을 제시하는 등 경쟁이 가열되면서 금융당국이 개입하고 나선 것임.
 - 지도 공문에는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제안 시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조치하고, 심사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관하도록 지시함.

- '10.2월말 현재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15조 1,176억원으로 지난 4년여간 꾸준한 양적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, 등록사업자 수는 53개사로 은행권이 7조 3,671억원을 기록해 48.7%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 - 초기에는 보험권의 시장점유율이 50% 이상을 차지하였으나, '08.10월 은행권이 선두에 나선 이후 점유율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, 후발사업자인 증권권역도 꾸준한 영업역량 강화로 '10.2월 현재 13.8%의 점유율을 차지함.
 - 한편, 적립금 규모가 가장 많은 상위 3개사는 삼성생명(3조 1606억원), 국민은행(1조 5422억원), 신한은행(1조 3958억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-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고금리 영업형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영업형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서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.
 - 또한 점검결과, 위규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분별한 영업형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임.

(금융감독원, 퇴직연금시장 무분별한 고금리경쟁에 대한 지도,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, 4/7)